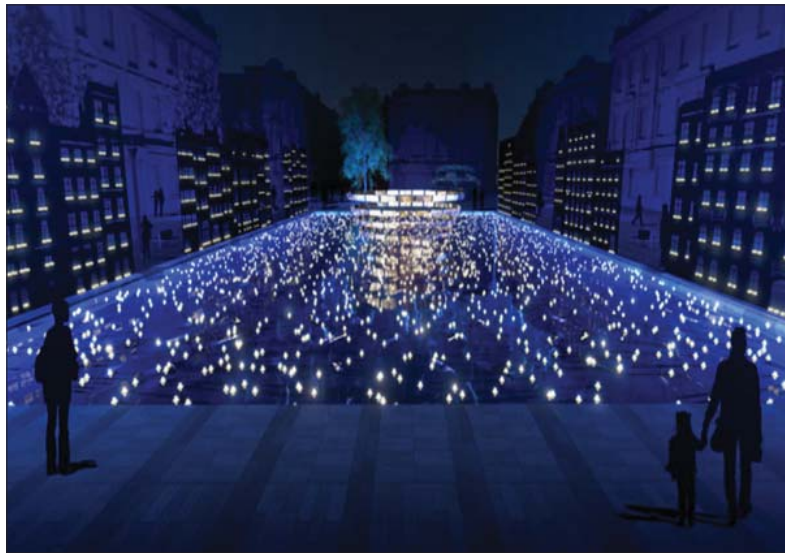


방치된 옛 콘도, 문라이트 파크로

문체부 지역관광개발 선정
남원시, 구 비사벌콘도에
230억원 투자 '달바꿈' 나서



남원시가 지난달 17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며, 총사업비 230억원을 확보해, 20여년간 방치된 구 비사벌콘도를 문라이트 파크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남원시가 지난달 17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며, 총사업비 230억원(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100억)을 확보해 20여년간 방치된 구 비사벌콘도를 문라이트 파크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런 공모사업은 기존의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진행되던 것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관광개발 사업을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남원시는 인센티브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입해 연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핵심 및 인프라 사업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요천로 주변과 관한루원까지 연계하는 전기차 운행과 대한민국 관광1번지 재생을 위한 관광정책성 확립과 지역특색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도 추진된다.

관리운영사업은 지역관광개발사업 사업 추진을 견인할 기관이나 조직이 거의 부재하고 있는 남원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원시관광협의회 및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내 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인적자원 역량강화 등이 추진된다.

인프라 개선사업으로는 남원 컨설팅리조트

옆 구비사벌콘도 유희부지 지하공간을 재생하여 남원의 스토리를 IT와 융합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시설인 'Moonlight Park'를 조성하고 동일 부지 지상 1층에는 시민쉼터 및 편의공간과 옥상에 꽃빛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사랑의 광장에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 사랑의 종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주변에 테마빌, 이벤트성 랜드마크인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현재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남원관광지 유희부지 재생을 기점으로 남원관광지 전체를 재생해 과거 관광1번지로 각광받던 남원의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선거법 위반 교회설교, 신고뎀 20만원 주겠다”

평화나무, 오늘부터 15일까지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신고 접수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교회 예배 설교를 이용한 목사의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 캠페인을 시작한다.

4·15총선을 앞두고 올해 1월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한 평화나무는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일부터 투표 종료 시점인 오는 15일까지 발생하는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유권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유권해석을 받는 시민 신고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평화나무 측 설명이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신교 교회 예배 중 사회·기도·설교·광고 등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발언을 하는 목사·장로 등이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신고된 사안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명선거 캠페

인”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설교와 강의 등을 통해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목사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준중 목사,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성화 목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은평제일교회 삼하복 목사, 사랑침례교회 정종수 목사,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 등이다.

이들은 교회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당이다”, “4·15총선에서는 확고한 우파 성향의 정치 지도자가 당선돼 그동안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일상 성평등 실현하는 나만의 방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성평등 콘텐츠 정기공모전
이달 20일부터 신청·접수



성평등 콘텐츠 정기공모전 포스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윤애 센터장)는 도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성평등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제4회 2020 성평등 콘텐츠대상 정기공모전'을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성평등과 폭력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권장 주제는 '일상의 차별과 불평등, 성평등을 실현하는 나만의 방법, 글로벌 성평등 이슈와 성공스토리'이고 일반주제는 '학교, 직장, 가정, 일상, 미디어 등에서의 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등으로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형식은 동영상 및 카드뉴스, 웹툰 등 웹 기반 형식의 콘텐츠로 미발표한 순수 창작물에 한해 개인 및 단체 공동작품 출품이 가능하며 작품 출품 수 제한은 없다.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한국여성성평등교육진흥원 콘텐츠 플랫폼 '젠더온'(http://genderon.kigepe.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상은 일반부, 학생부로 구분해 여성가족부 장관상 250만원을 비롯해 총 2,620만원 규모의 상금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 도내 출품작에 한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3등을 선정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상을 별도로 시상 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등 전국성평등교육협의회 23개 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 각 지자체,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배포돼 활용된다.

이윤애 센터장은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N번방 등 디지털 범죄와 성 갈등 문제가 사회적 약자를 타겟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사회적 성차별 요소와 관행이 재조명될 바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높이기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젠더온이나, 전화 063)254-3813 또는 홈페이지(www.jbwca.re.kr)를 통해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오목대 전통정원 다목적관 새 단장

전통문화전당, 입식·좌식 두 가지 형태 '쉼터마루'로 구성 새로 오픈

전주 한옥마을 전통정원의 핵심 공간인 '다목적관'이 대청마루를 형상화한 전통가옥 형태로 재탄생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의 전통이미지를 살려 입식과 좌식 두 가지 형태의 '쉼터마루'로 구성된 '오목대 전통정원 다목적관'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정원 다목적관은 전주시가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기존 공예품전시관 노외주차장 부지 1395㎡(422평)에 조성한 다목적공간을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쉼터로 탈바꿈했다.

공예품전시관은 다목적관이 전통정원을 마주 보고 있는 위치적 특성을 고려, 개방성을 강조했다. 개폐가 가능한 한옥 문을 써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투영 연못을 비롯해 배롱나무 등 전통정원의 다양한 정취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한옥구조의 대청마루를 연상케 하는 내부공간은 신발을 벗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닥은 기존 마루에 한지로 덧대어 화사함을 더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다목적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이다. /뉴시스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발당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 전북본부